

데이터로 보는 충남 소상공인 생활

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
김혜정 전임연구원, 김다희 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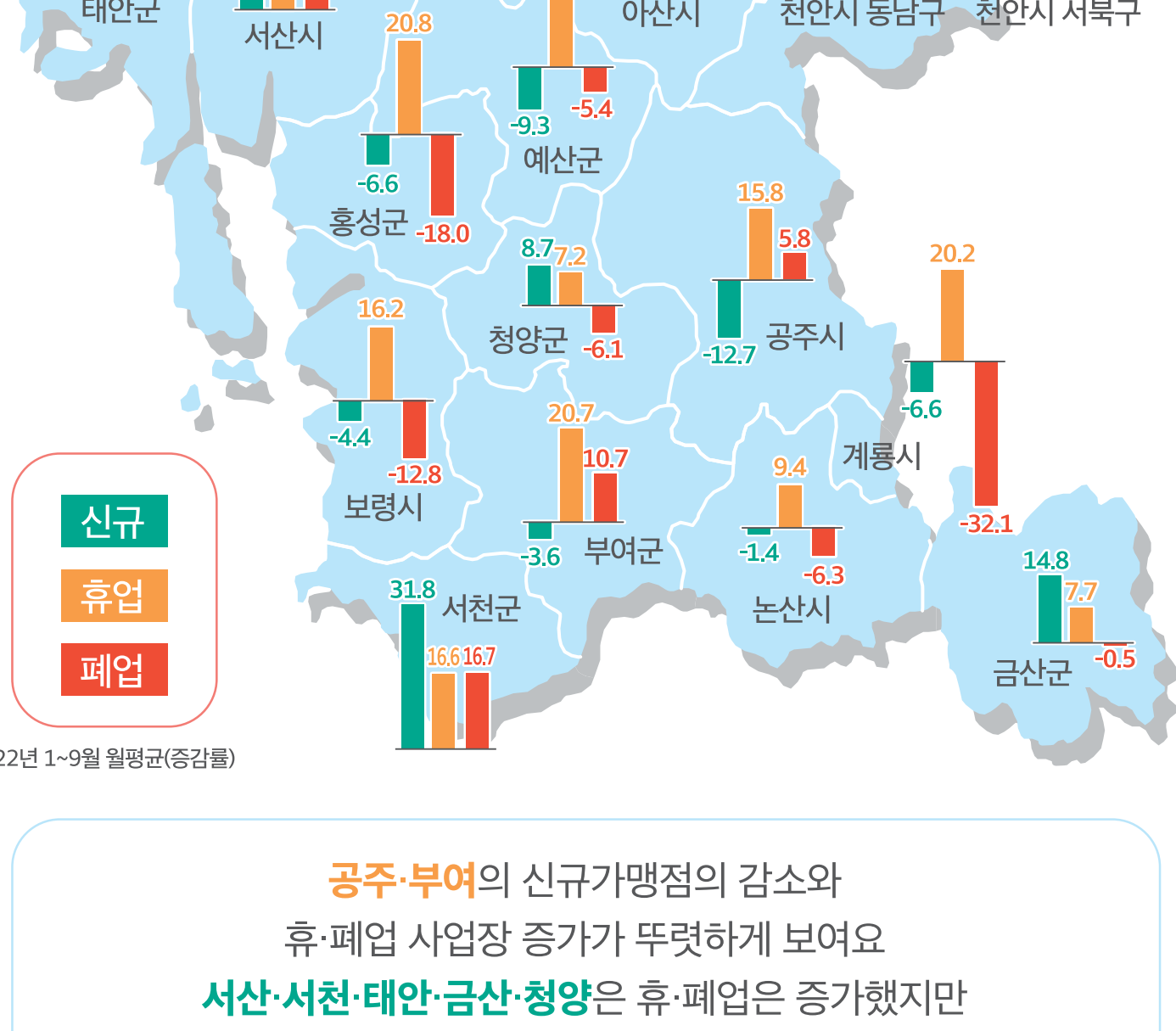
“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약 3.6% 증가하며 점차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어요”

*'19년 월평균대비 '22년 1~9월 월평균(증감률)



충남의 시군별 신규 휴폐업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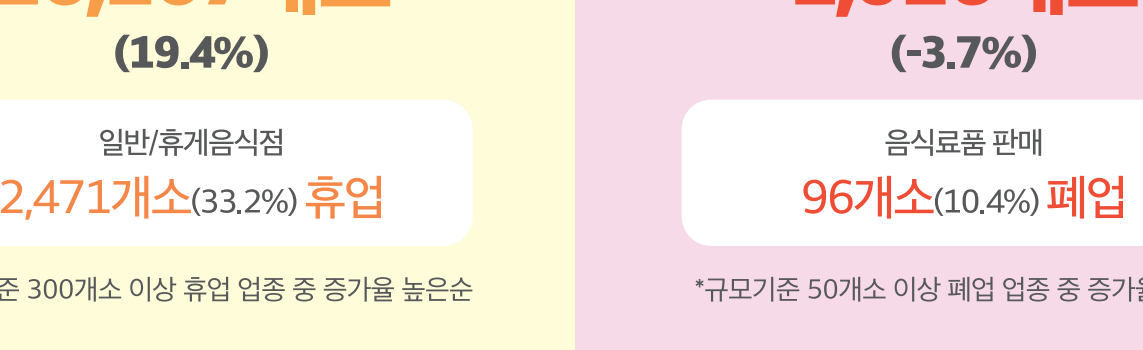
단위 : %



'22년 1~9월 월평균(증감률)

공주·부여의 신규가맹점의 감소와 휴·폐업 사업장 증가가 뚜렷하게 보여요
서산·서천·태안·금산·청양은 휴·폐업은 증가했지만 비교적 신규 가맹점이 활발한 편이에요

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어려움으로 휴·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장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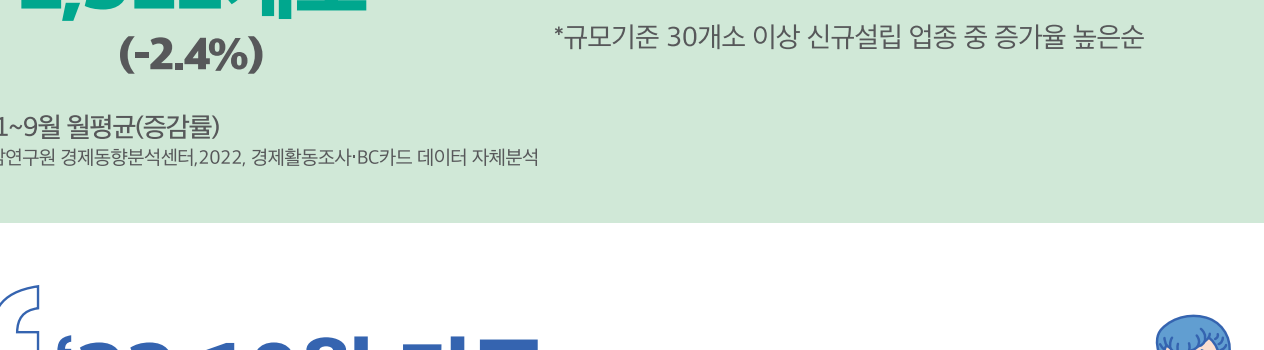


일반/휴게음식점 2,471개소(33.2%) 휴업

음식료품 판매 96개소(10.4%) 폐업

*규모기준 300개소 이상 휴업 업종 중 증가율 높은순

*규모기준 50개소 이상 폐업 업종 중 증가율 높은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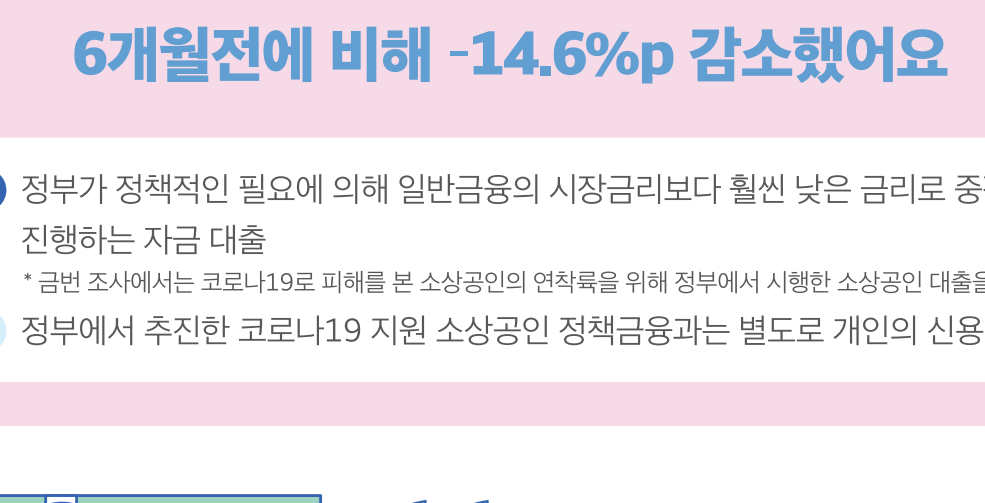


'22년 1~9월 월평균(증감률)
자료: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,2022. 경제활동조사·BC카드 데이터 자체분석

“'22.10월 기준, 약 40.2%가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”



코로나 19에 따른 추가 대출 실행 (조달유형별)



정책금융과 개인금융을 동시에 보유한 형태는 40.8%로 6개월전에 비해 -14.6%p 감소했어요

정책금융: 정부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일반금융의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증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자금 대출
*금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대출을 일컫음
개인금융: 정부에서 추진한 코로나19 지원 소상공인 정책금융과는 별도로 개인의 신용을 활용한 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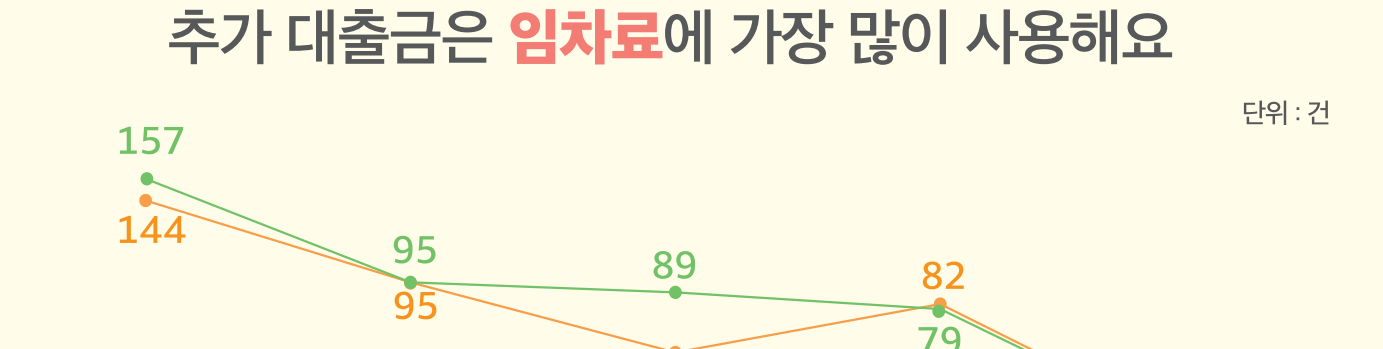
“코로나19 이후 실행된 추가 대출금은 평균 1,578만원”

<추가 대출금 규모>

단위 : 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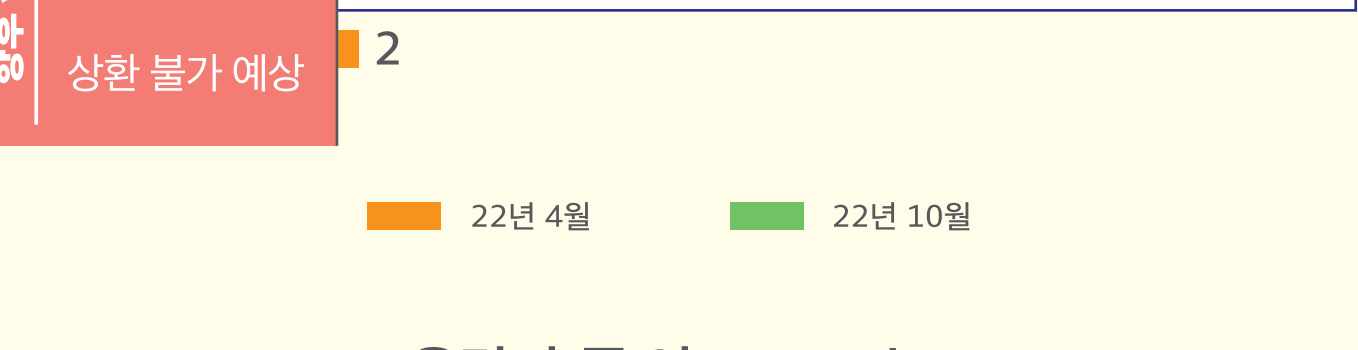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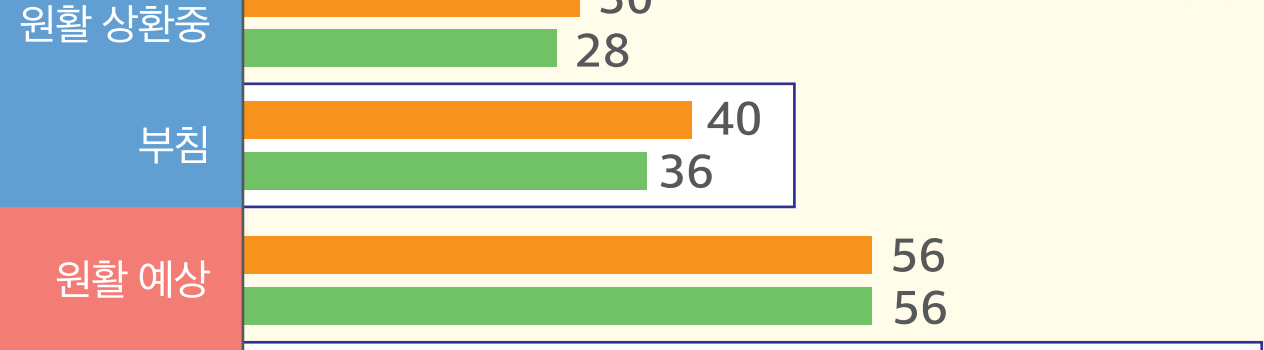


지난 4월 조사대비, 총 대출금은 약 130만원 감소했지만, 정책금융을 활용한 대출액 규모는 단일·동시 보유 모두 증가했어요



추가 대출금은 임차료에 가장 많이 사용해요

단위 : 건



응답자 중 약 58.2%는 대출금 상환에 부침을 경험하거나 예상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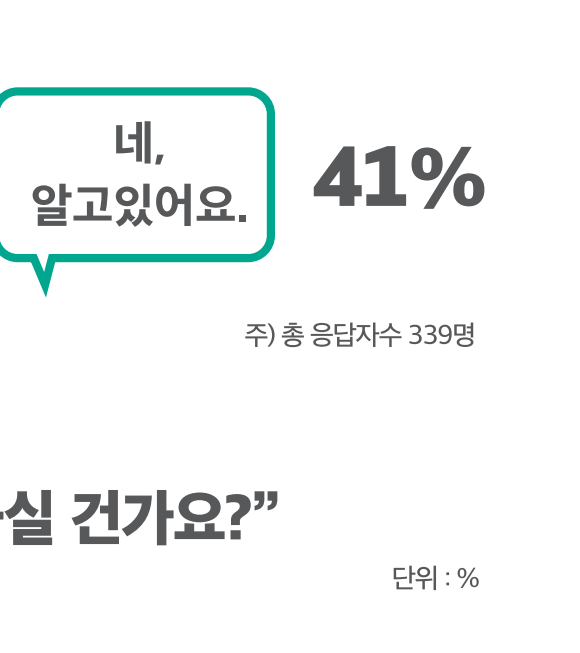
자료 :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, 2022.10. 충남 사회·경제 패널 10월 부가조사

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'새출발기금'

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의 피해 및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

*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: <https://새출발기금.kr/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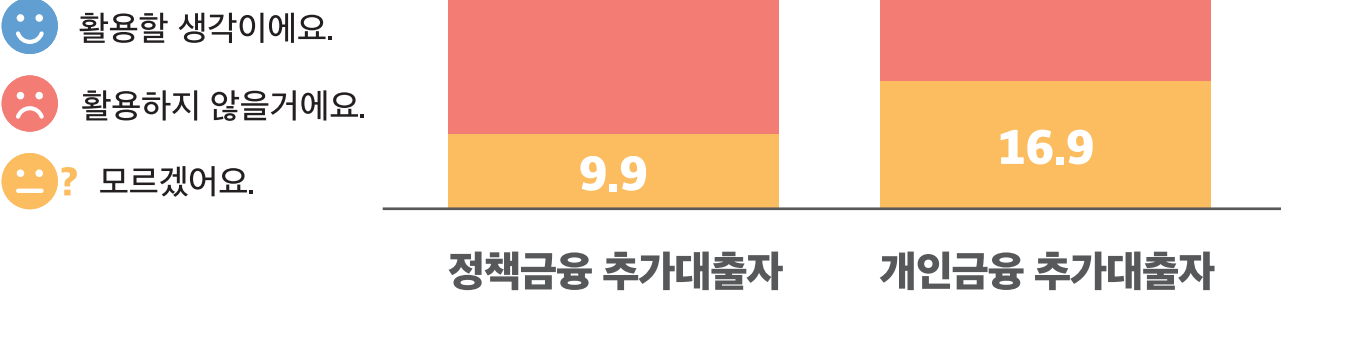
“소상공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. 새출발 기금에 대해 알고있나요?”



주) 총 응답자수 339명

“새출발기금, 활용하실 건가요?”

단위 : %



주)정책금융(개인금융) 추가대출자 중 새출발기금 관련 문항 응답자는 91(89)명